

낙농산업 미래, 우리가 이끈다!

- 2015년 청년낙농인 교육 개최결과 -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손정렬) 청년분과위원회(위원장 이용욱)는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대전 선사인 호텔에서 2015년도 청년낙농인 교육을 호평 속에 마쳤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된 청년낙농인 교육에는 새내기 낙농인부터 베테랑 낙농인까지 다양한 연령이 참석하여 교육에 대한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농은 제도의 산물, 낙농산업 보호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이번 교육은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의 낙농특강 「국제화에 따른 낙농산업에의 영향과 대응방안」으로 시작됐다. 조석진 소장은 국내외 낙농산업 개황과 낙농 주요국과의 FTA

체결현황을 설명하고, FTA 협상결과를 바꿀 수는 없으니 지금이라도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후계낙농인들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낙농산업은 제도의 산물로서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EU 및 일본 등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낙농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역설했다.

경쟁력 있는 목장, 꼼꼼한 기록관리부터 시작

회계의 개념부터 손익분석법까지 목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된 경영교육 시간에는 조별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발표하면서 목장의 수입과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발표해 보면서 생산원가 산출, 수익성 분석 등 목장경영의 실전감각을 키울 수 있었다. 목장경영 교육을 진행한 나현채 대표는 과도한 투자는 목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항상 재무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희망을 주는 낙농대책 제시해주길

이외에도 농식품부·교육생간의 간담회, 리더십 교육, 방역교육이 진행됐다. 농식품부와의 간담회는 하육원 농식품부 서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우선 낙농정책 현황을 듣고 이에 대해 교육생들이 질의하는 형식으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교육생들은 그간 낙농정책은 발등의 불을 끄는 수준에 불과했다며 제도적인 우유소비 확대방안, 전국단위 쿼터제 도입, 실효성 있는 FTA 피해보전대책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낙농제도를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하육원

서기관은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이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지만, 대다수 낙농인이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진 협회장과의 대화시간에는 낙농현안에 대한 허심탄회한 얘기들이 오갔다. 최근 낙농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에 다들 공감하는 한편, 지금 이 자리에는 빠르게 변하는 낙농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만큼 협회에서 희망적인 낙농의 미래를 위해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손정렬 회장은 낙농산업의 미래인 청년 낙농인들이 맘 놓고 목장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낙농여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협회를 중심으로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리더십 교육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리더와 조직구성원(팔로워)의 역할을 되짚어봤고,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질병과 방역관리를 통한 예방법을 배울 수 있었던 방역교육에 이어, 수료식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교육이 마무리됐다.

교육생들은 “그간에는 주입식 교육이 많았는데 교육과 친목이 어우러진 교육은 처음이었다”, “우유 1ℓ당 원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니 회계의 개념이 잡혔고 앞으로 보완해야할 점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수료동기이자 낙농대선배인 한 교육생은 “목장의 전문경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후계낙농인이라고 해서 목장일에 나서기에 이르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 경로로 공부하고 지식을 공유해야만 선도 낙농인이 될 수 있다”고 후배 낙농인들을 다독였다.

교육을 시작하기 전에 각기 다른 남유처와 세대차이로 인해 교육생간의 융화가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낙농이라는 한지붕 아래 모인 교육생들은 자연스럽게 선후배가 되어 서로를 이끌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환경에서 목장을 이어나가야 하는 후계낙농인들의 불안함과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다는 패기,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했다. 내년에 있을 교육에도 뜨거운 열정을 간직한 청년낙농인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해본다. ㉞